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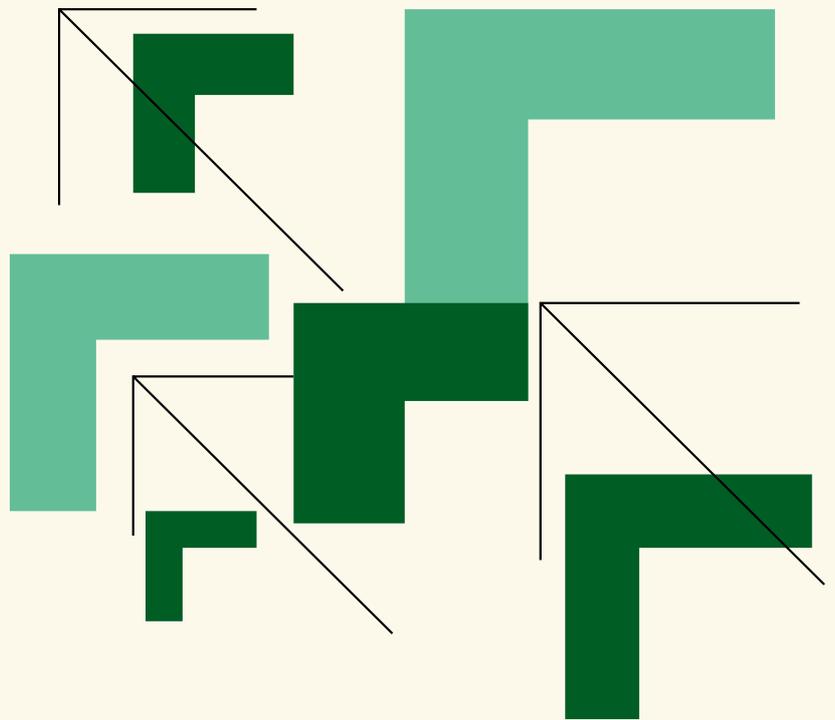
# 이화 소식

2007.06.29 제 79호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 시편 119편 33절 -

## Initiative EWHA

Global Ewha 2010



- 창립 121주년 기념사 \_02
- '이화 가족의 밤' 음악회 \_06
- 북경대 '이화여대의 날' \_08
- 이화학술원·스크랜튼 대학 설립 \_11
- 열돌 맞은 국제대학원·통역번역대학원 \_12
- '이니셔티브 이화' 엠블렘 제작 \_15

# “121주년을 글로벌이화의



신록의 푸르름이 이화 교정을 더욱 생기있고 아름답게 만드는 이화 탄생의 날, 121주년 창립 기념행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 뜻 깊은 이화의 날을 기리기 위해 귀한 시간을 내셔서 자리를 함께 해주신 정의숙 전 명예 이사장님과 윤후정 이사장님을 비롯한 이화학당 이사님들, 유승희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 김순영 동창회장님과 국·내외 동창 여러분, 그리고 장상 전임 총장님과 신인령 전임 총장님을 비롯한 이화의 전·현직 모든 교직원과 재학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이화인상을 받으시게 되는 강명순 부스르기사랑나눔회 대표님과 올해의 탁월한 연구업적으로 이화학술상 수상자로 선정되신 이혜순 선생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화동산에 30년, 20년, 10년을 바쳐 이화에 헌신하신 근속 교수님과 직원 선생님들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1886년 오늘, 이화는 한국 여성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 속에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121년 전 바로 그 날, 하나님의 귀한 뜻이 계서 서부의 황야에 복음을 전파하던 강인한 개척정신의 기독교와 봉건적 질곡 속에서 자기실현을 꿈꾸던 근면한 한국 여성들의 열정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121년전 오늘부터 20세기에 거쳐 21세기를 들어오는 동안 이화는 일관되게 여성이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되고 역사의 주체가 되는 새 시대를 지향해 왔습니다. 이화의 진취성과 도전 정신은 이 땅의 수많은 차별의 벽을 허물고 각 분야에서 이 땅의 여성들을 역사의 위대한 선각자의 위치로 올라시킬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러한 이화의 선각자적 정신은 21세기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이화가 세계적인 초일류 명문대학으로 웅비하리라는 필연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 결단과 도전의 이화 역사 121년

지난 121년 동안 이화가 이룩한 것은 단순한 양적 성장이 아니었습니다. 여성의 부드러움과 창의성, 성실성과 다양성, 유연성, 균형과 조화의 정신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이 이 땅에 열매맺게 한 위대한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지난 121년간 이화는 시대의 변화가 주는 다양한 기회와 도전에 슬기롭게 대응함으로써 한 단계씩 도약해 왔습니다. 이화의 역사는 세상의 변화를 먼저 읽고 남들보다 앞장서서 이를 선도했던 결단과 도전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앞에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한 변화의 파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해외 유학생 급증이라는 대내적 경쟁 구도 위에, 한미 FTA를 비롯한 개방경제 체제의 확대가 교육 시장 개방을 통한 대외적 경쟁을 가중시켰습니다. 이미 세계 최고의 여성 명문사학으로 자리 잡은 이화는 창조적인 혁신가로서 21세기 대학교육을 선도하고 시대 변화를 극복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남보다 한 발 앞서 새로운 선택을 제안하고 적용하는 창조적 진화 능력을 지닌 21세기형 여성리더를 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인식 아래, 이화는 지난해 '이니셔티브 이화'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세계화 시대를 향한 웅비의 나래를 활짝 펴려고 합니다. 이화는 한국을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와 교육역량을 갖춘 굴지의 명문대학이자 세계 여성 교육의 허브가 되기 위해 모든 영역에서 이니셔티브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 속에서 우리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문 인력을 배출하고 남녀평등의 확고한 원칙이 존중되는 새로운 인류 문명의 지성공동체를 구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이화는 지난해 10월, 파주에 30만평 규모의 교육 및 연구 복합단지를 건립할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단계적으로 조성될 파주캠퍼스에는 재학생들을 위한 인성·리더십·외국어 집중 교육시설 뿐 아니라 산학연구 복합단지, 기숙사 시설, 재교육 시설,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복지 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이러한 새 캠퍼스의



# 새로운 원년”

조성은 121년의 이화가 통일시대를 대비하고 글로벌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더 많은 교육 프로그램을 담아낼 터전을 마련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파주 캠퍼스는 신촌 캠퍼스와 함께, 더 큰 역사적 의미와 또 하나의 교육의 이상을 높일 것입니다.

## 글로벌 이화의 세계적 위상 확보

올해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닌 진취적이고 창조적인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한 '글로벌 이화 2010' 계획이 시작되는 새로운 원년입니다. 올해 초 제시한 '글로벌 이화 2010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통해 2010년까지 미국 동부와 유럽, 중국의 베이징 등에 이화교육의 거점을 신설하여 세계대학교육의 중심지 역할을 하려 합니다. 바로 이번 5월 17일에 북경대에서 거행된 '이화여대의 날' 축제는 글로벌 이화의 세계적 위상을 확보하는 구체적 실현의 하나입니다.

이화는 변화하는 세계적 환경에 단순히 적응하는 데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변화를 주도하고 새로운 문화적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선구자적 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신설된 국제교류처는 모든 국제적 업무를 총괄하게 됩니다. 더불어 기존의 국제학부와 학부대학을 통합하여 이화만의 독자적 국제화 교육모델로 스크랜튼 대학을 설립하였습니다. 스크랜튼 대학은 다문화적 소양과 기초학문 지식을 모두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의 새로운 교육 모델이 될 것입니다. 한편, 올해 2월 1일에는 이화학술원을 설립하였습니다. 이화학술원은 융합적인 학문연구와 범세계적인 학술교류의 장을 주도하며 국내외 대표 지성과 석학들이 참여하는, 명실 공히 세계 연구의 중심축으로서 위상을 확보하리라 기대합니다.

이와 더불어 학생·교직원들을 위한 복지시설의 확대와 교육의 내실을 기하는 일을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9월 이화어린이연구원이 신설되었고, 국제기숙사와 대학원 기숙사가 봉헌되었습니다. 또 올 2월 공학관 B동 신축을 시작함으로써 1996년 세계 최초의 여성 공과대학을 설립하여 이화의 선구적 교육성과를 세계적으로 널리 알린 과학 이화의 위상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창립 121주년을 기념하는 오늘, 저는 이화에 맡겨진 하나님의 소명을 다시금 되새기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21세기는 여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제 역사의 주체로서 당당히 앞장서가는 여성들이 시대적 사명과 책임을 다하여 따뜻하고 평화로운 양성 평등 시대를 실현해나가기 위해서는 121년 여성교육의 경험과 지혜를 쌓아온 이화의 역할이 더없이 중요합니다. 이화는 언제나 새로운 변화의 동반자였고 선구자였습니다. 또한 이화의 시선은 항상 세계로 향해 있고 이화의 가슴은 미래를 품고 대화하고 있습니다. 이화는 세계를 향해, 미래를 향해 도약하는 대학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모든 이화인들이 화합의 의미를 되새기고 조화의 지혜를 일깨우며 섬김과 나눔의 자세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다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것은 이화의 영원한 교육정신인 진선미의 교훈을 실천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워주신 이화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은 한마음으로 경건하고, 겸허하고 성실하게 더욱 정성을 다 바쳐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교내외 귀빈 여러분과 이화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은총과 인도하심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요약본>

2007. 5. 31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이 배 응

# “창조적 혁신으로 21세기 대학교육 선도”

## 5월 31일 대강당에서 창립기념식

본교는 창립 121주년을 맞아 5월 31일(목·오전 10시) 대강당에서 정의숙 전 명예이사장, 윤희정 이사장을 비롯한 교내외 주요 귀빈, 동창, 재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기념식을 갖고 세계적인 명문으로 도약하는 ‘글로벌 이화’의 새로운 원년으로서 121주년의 의미를 되새겼다.

창립 기념식사에서 이배용 총장은 “121년 동안 이화는 일관되게 여성이 한 사람의 인간으로 존중되고 역사의 주체가 되는 새 시대를 지향해 왔다”면서 “이러한 진취성과 도전정신을 이어받아 2007년을 한국을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와 교육역량을 갖춘 세계적인 명문대학, ‘글로벌 이화’로 도약하는 새로운 원년으로 삼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 총장은 또한 “이화는 언제나 새로운 변화의 동반자였고 선구자였다. 이화의 시선은 항상 세계로 열려 있고 이화의 가슴은 미래를 품고 대화하고 있다”면서 “세계 속의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이화인 모두가 흐르는 강물처럼 변화에 두려

움 없이 도전하고 스스로 변화와 개혁과 혁신을 이룩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이화에 봉직한 지 10년·20년·30년 된 근속 교직원에 대한 표창과 함께 30년간 빈민아동을 돌봐온 부스르기사랑나눔회 강명순 목사(시청각교육과 74년 졸)에게 제 11회 ‘자랑스러운 이화인’ 상을, 탁월한 학문적 성과를 이룬 이혜순 교수(국문)에게 제 3회 ‘이화학술상’을 수여했다.

30년을 한결같이 소외되고 가난한 어린이와 여성들을 돌봐온 공로로 올해의 ‘자랑스러운 이화인’ 상 수상 영광을 안은 강명순 목사는 시상식 내내 감동의 눈물을 흘려 객석으로부터 뜨거운 격려와 축하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한편 총동창회(회장 김순영)의 ‘동창의 날’ 기념행사도 같은 날(오후 2시) 대강당에서 열렸다. 기념식과 올해의 이화인 추대, 합창제 등으로 이어진 이날 행사에서 김순영 회장은 김이경(문헌정보학 77년 졸) 등 37명의 동창에게 ‘올해의 이화인’ 증서를 전달했다. <관련기사 20면>



### 이혜순 교수 ‘이화학술상’ 수상 30년간 원 없이 공부할 수 있어 행복

“이화가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라 30년간 원 없이 공부하고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함께 토론하고 공부할 수 있는 제자들이 있어 고맙고 행복합니다.”

5월 31일 열린 창립 121주년 기념식에서 ‘이화학술상’을 수상한 이혜순 교수(국문의 수상소감은 평생 학자로 살아온 그답게 감박했다. 이 교수는 ‘한문학 비교연구의 대가’로 불린다. 국문학 석사(한국), 비교문학석사(미국), 중국문학박사(대만) 학위를 받은 그는 한국 고전문학을 일본·중국문학 등 비교문학적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함으로써 한국 한문학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의 대표 저서인 ‘조선통신사의 문학’(1996), ‘고려전기 한문학사’(2004) 등은 비교문학의 정석으로 꼽힌다.

‘조선통신사 사행기록 시리즈’로 제 47회 한국출판문화상(편집부문)을 수상했고, ‘한국의 열녀전’(2002)이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한국고전 여성문학의 세계’(2003), ‘고려전기 한문학사’(2004), ‘우리 한문학사의 해외체험’(2006) 등의 저서가 문화관광부 우수 학술도서 선정되는 등 탁월한 학문적 성과를 남겼다.

또한 한국고전문학회(1993~1995), 한국한문학회(2001~2003) 회장, 국어국문학회(2003~2005) 첫 여성 대표이사, 한국고전여성학회(2000~2004) 초대회장을 역임함으로써 국문학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 열정적인 강의로 학생들이 뽑는 ‘베스트 티처상’을 두 차례(2000, 2002년) 수상한 바 있으며 2007년에는 연구실적 및 연구비 우수 교원에 선정됐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여기자인 최은희 여사의 처녀로도 유명하다.

올해 정년을 앞두고 있는 이 교수는 “최근 비교문학에서 한국 고전여성문학, 조선 예학 연구까지 학문분야를 넓힐 수 있었던 것은 이화에서 쌓은 여성적 관점과 문화적 소양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철학적, 인문학적 사유로 전통 의례를 지속적으로 연구, 인문학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화학술상’은 탁월한 연구 성과로 학술발전에 기여하고 이화의 학문적 우수성을 널리 알린 본교 교수에게 평생 1회에 한하여 수여되는 상으로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 <효>



## 제 11회 '자랑스러운 이화인' 강명순 목사 부스러기도 아름다운 꽃을 피우지요

"아이고 큰일 났네, 이 일을 우짜꼬~!"

강명순 목사(시청각교육과 74년 졸)에게 '자랑스러운 이화인' 상 수상 소식을 전했을 때 그의 첫 마디는 이랬다. 이화가 주는 가장 영예로운 상이라는 말에 "그저 예수님이 인도하신 길로 따라만 갔을 뿐인데 이리 큰 상을 받게 되다니 그저 황송할 따름"이란다.

30년간 가난하고 소외된 빈곤층 어린이와 여성들을 위해 헌신한 공로로 제 11회 '자랑스러운 이화인'에 선정된 강명순 동문. 그는 '빈민촌의 대모'로 통한다. 본교 재학시절 빈민촌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빈민 운동에 뛰어든 강 동문은 졸업 직후 서울 사당3동 산동네에서 '희망유치원' 원장을 지내다 1986년 부스러기선교회를 창립하여 빈곤층 어린이들과 함께 하는 삶을 시작했다.

단돈 1000원을 통장에 입금해 만든 부스러기선교회는 현재 '부스러기사랑나눔회'라는 사단법인으로 발전하여 창립 21주년을 맞는다. 강 목사를 비롯한 빈민활동가 5명이 시작한 부스러기사랑나눔회는 현재 290개 지역 이동센터를 통해 9700여명의 빈곤층 아동에게 급식 및 공부방, 장학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강명순 목사는 또한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부터 '신나는 조합'이라는 이름으로 국내 최초의 마이크로크레디트 사업을 시작했다. 2007년에는 '2020년까지 빈곤결식결손가정 아동이 한 명도 없는 나라를 만들자'는 취지의 '2020빈나' 운동을 펼치며 빈곤퇴치 운동의 새 장을 열고 있다.

강명순 목사는 "부스러기도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수 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면서 "처음에 빈손으로 빈곤층 돕기 사업을 시작했을 때 모교의 교직원 분들이 내 일처럼 도와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본교는 지난 1995년부터 본교 동창 또는 본교에 장기간 봉직한 분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쌓아 이화 정신의 귀감이 된 분을 대상으로 '자랑스러운 이화인' 상을 수여하고 있다. <효>





## 창립 121주년 기념 ‘이화 가족의 밤’ 음악회 감미로운 선율속에 하나된 이화인들

창립 121주년을 기념하는 ‘이화 가족의 밤’ 음악회가 5월 29일(화· 오후 7시 30분) 대강당에서 이배용 총장을 비롯한 교직원, 재학생, 동문, 학부모 등 이화가족 29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여 동안 화려하게 펼쳐졌다.

대외협력처(처장 이명선 교수)가 주관한 이 행사는 이화가족들이 다채로운 음악속에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의미로 마련되었으며 동문인 KBS 오유경 아나운서(정외과 93년 졸업)가 진행을 맡았다.

이번 공연에는 이화발레앙상블, 이화 첼리, 남성교수중창단, 가야금국악연주단, 음대 오케스트라, 음대 합창단, 김상곤, 신지화 교수 등 이화가 자랑하는 공연팀이 총동원되어 때로는 신나고 때로는 웅장한 무대로 청중들의 아낌없는 박수를 받았다. 특히 이화의 명물인 남성교수중창단 ‘백설공주와 오빠들’ 이 코믹한 화음

으로 ‘The Lion Sleeps Tonight’ 을 부를 때는 무대와 청중이 웃음과 환호속에 하나가 되기도 했다.

한때 본교 명예홍보대사로 활동했던 성시경씨, 본교 이영희 연합회 동문이기도 한 임희숙씨, 한국의 대표 대중음악인 조영남씨 등 가수들도 열창으로 초여름밤의 대강당 무대를 달구었다.

이배용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화는 원래 창립 당시부터 성경과 찬송가를 공부하는 음악적 전통을 갖고 있었다”면서 “이번 행사를 통해 이화인 모두가 즐거움속에 하나가 되는 경험을 나누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음악회에 앞서 총장공관에서는 ‘이화 가족의 밤’ 만찬 행사가 열려 이화의 창립 121주년을 함께 축하했다. <관련기사 21면>

## 되돌아보는 이화의 자랑스러운 역사 ‘이화 110년사 : 이화 2세기의 출발’ 출간

1987년부터 1996년까지의 10년은 이화에 있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에 대한 충실한 답변이 될 만한 책이 ‘이화 110년사 : 이화 2세기의 출발 1987~1996’ 라는 제목으로 본교 출판부에 의해 출간됐다. 이배용 총장과 진덕규 이화학술원장이 공동 집필한 이 책은 이화 100주년을 기점으로 이화 제 2의 도약과 발전을 총지휘했던 정의숙 9대 총장과 윤후정 10대 총장의 리더십 및 본교 발전의 다양한 모습들을 담고 있다. 학교행정의 변화, 교육의 개혁과 발전, 연구활동의 활성화, 새 비전의 제시, 학생 활동과 지도, 재정 확보 노력, 동창 활동 등의 내용이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다.

이배용 총장은 “이 책이 다루고 있는 이화 1세기 이후 10년이라는 시간은 이화가 지난 100년을 정리하면서 ‘민족의 이화’에서 ‘세계의 이화’로 도약하는 터전을 마련했던 시기”라며 “학교 기구가 커지고 자료도 방대해짐에 따라 장기적 자료 보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앞으로는 10년사 단위의 정리와 서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5월 28일(월· 오전11시· 이화역사관) 열린 출판기념회에서는 이 책과 함께 ‘이화 110년사 - 어제와 오늘’의 간행도 함께 축하했다. 이화역사관이 엮고, 본교 출판부가 펴낸 이 책은 ‘이화 70년사’ ‘이화 80년사’ ‘이화 100년사’ ‘이화 110년사 : 이화 2세기의 출발 1987~1996’ 에 이어 5번째로 정리된 이화의 역사책이다.

총 157쪽 분량에 다양한 사진자료, 압축된 문장으로 누구라도 쉽게 읽고 이화의 110년 역사를 조감할 수 있도록 한 편집이 돋보인다. 이화학당 시대, 대학과 시대, 전문학교 시대, 종합대학교 확립기, 이화의 발전기, 이화의 도약기, 이화 21세기 등 총 7장으로 나누어져 이화가 걸어온 고비고비의 여정이 손에 잡힐 듯 그려져 있다. ‘이화 110년사 - 어제와 오늘’은 2005년 ‘Ewha Old and New’ 라는 제목의 영문본으로도 출간된 바 있다.

이배용 총장은 “이화의 역사는 단순히 이화만의 창립과 발전의 역사가 아니라 한국의 근대사이며, 교육사이고 또한 한국 여성사”라면서 “이 책에는 한국 여성들의 꿈과 염원, 그리고 비전이 담겨있다”고 말했다.



정의숙 전 명예이사장, 이화기장 수상

# “한국 여성교육사에 길이 남을 큰 스승”

본교 정의숙 전 명예이사장(사진 가운데)이 5월 30일 이화여고 창립 121주년 기념식에서 이화여고 졸업생에게 주는 최고 영예인 이화기장을 받았다. 1949년 이화여고를 졸업한 정 전 명예이사장은 본교 영문과를 거쳐 미국 노스웨스턴대에서 ‘신학과 교육’ 전공으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고 50여년 동안 본교 교수, 총장, 이사장 등으로 봉직하며 여성교육에 한평생을 헌신했다.

이화여고는 정의숙 전 명예이사장의 공로에 대해 “지성과 전문지식뿐 아니라 인간애를 가진 인재들을 키우고자 하였고, 뛰어난 대학 경영인으로 학교를 발전시켜 반석위에 올려 놓았으며 세계 최대 규모의 여자대학에 만족하지 않고 최고의 명문대학을 만들려고 노력해 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평생 깨끗하게 한 길만을 가면서 교육과

신앙이야말로 이 세상 최고의 가치라는 자부심을 안고 이화의 역사에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임무를 다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념식에는 윤후정 이화학당 이사장, 이배용 총장, 이광자 서울여대 총장, 지은희 덕성여대 총장 등 이화여고 동문 총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수상을 축하했다.



윤후정 이화학당 이사장, 여성신문과 인터뷰

# “한국 여성의 법적 평등권 확보한 주역”

한국 최초의 여성 헌법학자로 한국 여성의 법적 평등권 확보에 기여해 온 이화학당 윤후정 이사장의 일생을 정리한 인터뷰 시리즈가 여성신문에 4월과 5월에 걸쳐 총 6회로 나누어 게재됐다. 여성신문은 “윤후정 이사장의 공로는 여성교육에 이바지한 부분도 크지만, 최초의 여성 헌법학자로서 우리나라 헌법에 현재와 같은 양성평등 조항을 삽입하여 여성의 공적 생활에서의 평등권을 확보한 공로 역시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면서 926~931호에 윤 이사장이 걸어온 길을 다양한 일화와 함께 정리해 소개했다.



이 시리즈는 여성신문에 의해 ‘다시 시작하는 이야기 여성사’의 첫 번째 책으로 출간될 예정이다. 인터뷰 내용은 회별로 다음과 같다.

- ① 남성법에 여성 목소리 담아(926호) ② ‘합리적인 차별’ 개념 도입, 여성시각 가족법 틀 마련(927호) ③ 마침내 ‘남녀차별금지법’이 탄생했다(928호)
- ④ 한국을 세계 여성학의 메카로(929호) ⑤ ‘이화’ 통해 여성교육의 비전 넓혀(930호) ⑥ 일평생 선지자적 비전 · 끊임없는 열정(931호)

## 5월에 기리는 이화의 스승들

이화의 창립과 성장 발전에 헌신했던 스승들을 기리는 추모행사가 5월 11일과 22일 양화진 외인묘지와 가평 이화수목원에서 두 번에 걸쳐 마련됐다.

5월 11일(금·오전 11시) 양화진 외인묘지에서 열린 추모행사(오른쪽 사진)에는 이화학당 윤후정 이사장과 이배용 총장, 김순영 동창회장을 비롯한 교직원, 동문들이 참석하여 이곳에 묻힌 다섯분의 이화 스승들이 남긴 이화 창립의 참 뜻을 다시한번 되새겼다. 본교는 지난해 5월 23일 창립 120주년을 맞아 메리 F 스크랜튼 당장, 로제타 셔우드 홀 의사, 조세핀 O 페인 당장, 메이어 R 할만 당장 서리, 앨린스 R 아펜셀러 교장 등 다섯분의 유해가 모셔져 있는 양화진 외인묘지 스크랜튼 묘역에 이들의 헌신이 새겨진 기념 표석을 세운 바 있다.

한편 가평 이화수목원에서의 추모행사는 5월 22일(화·오전 11시)에 열렸다. 이화수목원에는 지난해 9월 12일 금관동산에서 이장한 김활란 전 총장을 비롯한 서은숙 전 이사장, 김영의 전 이사장, 이정애 선생, 김애식 선생님, 박도라 어머님(김활란 전 총장의 모친) 등 여섯분의 유해가 양지바른 언덕에 모셔져 있다. 이화학당과 본교는 앞으로 창립기념일이 있는 매년 5월에 양화진 외인묘지와 가평 이화수목원에서의 추모행사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 북경대에서 펼쳐진 '이화여대의 날' 행사



“북경대는 이화여대와의 오랜 협력과 교류를 통해 또하나의 한국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양국의 엘리트 양성에 앞장서 온 두 학교가 앞으로 협력의 범위를 더욱 넓혀간다면 중국과 한국의 동반자 관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북경대학 쉬쯔홍(許智宏) 총장 환영사)

▲이배용 총장과 북경대 쉬쯔홍 총장이 학술교류협정 후 선물을 교환하고 있다.  
▶ '이화여대의 날' 행사를 알리는 북경대 포스터.



## 글로벌 시대 이끌어갈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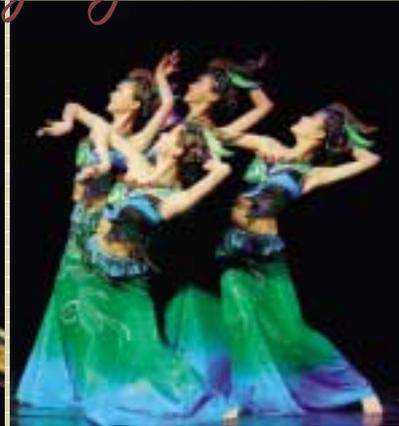
# 'Ewha in Beijing'으로 '글로벌 이화 2010' 첫 발

중국의 세계적 명문 북경대학이 주최하는 '이화여대의 날' 행사가 지난 5월 17일(목) 북경대 캠퍼스에서 이배용 총장, 안홍식 부총장, 주요 처장·학장단을 비롯한 교직원, 학생 등 총 90명의 본교 방문단이 참석한 가운데 학술교류 협약식, 학술발표회, 이화역사전 시회, 합동예술공연 등으로 다채롭게 펼쳐졌다.

북경대는 창립 110주년(2008년)을 앞두고 세계화 추진행사의 하나로 2001년부터 예일대, 스탠포드대, 캠브리지대, 옥스퍼드대, 와세다대 등 세계 유수 대학을 한 곳씩 선정, '대학의 날' 축제를 열어왔는데 올해에는 한국 대학으로는 처음으로 본교를 초빙한 것. 본교와 북경대는 1993년 여성학 분야의 협력을 계기로 1996년 대학 차원의 학술교류 협정을 맺었으며 그간 여성학, 사학, 중문학, 평생교육원, 경영전문대학원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교수 및 연구진 상호 교류, 공동 학술대회 개최 등 활발한 교류 활동을 펼쳐왔다. 이날 '이화여대의 날'을 기념하여 양교는 기존의 교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했으며 특히 북



## Ewha in Beijing



▲본교와 북경대 합동공연단의 다채로운 공연 모습.

◀본교의 120년 역사를 담은 이화역사전시회.

“ 오늘 ‘이화여대의 날’ 을 계기로  
양교는 15년 가까이 쌓아온  
인적, 물적 기반을 더욱 폭넓게 공유하면서  
아시아적 가치를 대변하는  
아시아의 거점대학으로서 국제화 시대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  
(이배용 총장 답사)

경대 안에 본교의 해외 거점캠퍼스인 ‘Ewha in Beijing’ 을 구축키로 합의, 큰 관심을 모았다.

‘Ewha in Beijing’ 이 구축되면 본교는 북경대를 중국 내 거점대학으로, 2008년 2학기부터 매년 30~100명의 학생을 파견하게 된다. 현지 사무실에 지도교수를 직접 파견하여 중국 전역에서 수학중인 본교 학생에 대한 학사지도 및 상담, 해외 장학금, 해외 인턴십 등도 일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본교는 ‘Ewha in Beijing’ 외에도 2008년까지 ‘Ewha in NY’, ‘Ewha in London’ 등 세계 핵심 지역에 순차적으로 거점캠퍼스를 구축, 글로벌 명문과 이화를 하나로 잇는 지식 네트워크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이화여대의 날’ 행사에는 이화를 대표하는 석학들이 대거 참여, 본교의 학술 연구 역량을 자랑하는 ‘학술발표회’ 도 마련됐다. 박경서 이화학술원 석좌교수가 ‘동북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평화와 협력의 길’ 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가졌으며 최진호 석좌교수, 이서구 석좌교수, 함인희 교수가 각각 나노과학, 생명과학, 사회과학 분야 대표로 특강을 진행했다. 또한 오후 7시30분 북경대 백주년 기념강당에서는 본교와 북경대의 합동 예술공연이 청중들의 뜨거운 환호속에 화려하게 펼쳐졌다. 음대 교수단의 실내악 연주, 국악과 교수 및 재학생의 국악 합주, 가야금 독주를 비롯하여 무용과 재학생들의 발레, 현대무용, 한국무용 등은 나무랄 데 없는 기량으로 예술 이화의 저력을 한껏 발휘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김효근 국제교류처장은 “북경대와의 더욱 깊어진 교류 협력은 전세계 다른 명문대학들과의 교류확대에도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 이라며 ‘글로벌 이화 2010 프로젝트’ 의 본격적 추진에 큰 자신감을 나타냈다. 본교는 ‘이화여대의 날’ 에 대한 답례로 올가을 본교 캠퍼스에서 ‘북경대의 날’ 행사를 가질 계획이다.

## 서울대 · 산업기술연구회 · 법무부 · 중앙민족대학 등 늘어난 이화의 학술 교류 파트너

본교와 학술교류 협정을 맺는 국내외 학문적 파트너들이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다. 국내에서는 서울대, 산업기술연구회, 기초기술연구회, 법무부 등이 잇따라 본교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했으며 해외 파트너 대학들도 중국, 대만, 싱가포르, 덴마크, 폴란드 등으로 그 범위가 한층 넓어지고 있다.

### 서울대와 국제화 협력

본교와 서울대(총장 이장무)는 4월 6일(금 · 오전 11시) 서울대 행정관에서 교육 · 연구 · 사회봉사 분야의 상호 교류를 위한 학술교류 협정식을 갖고 ▲교직원 상호교류 ▲학생(학부생 및 대학원생)의 교류 및 학점 교환 ▲공동연구 및 학술회의 개최 ▲학술자료, 출판물 및 정보 교환 등의 교류를 추진키로 했다. 특히 이번 교류 협정에서는 대학 간의 일반적인 학술교류의 틀을 벗어나 국제화 부문에서도 긴밀한 파트너십을 추진키로 합의, 많은 관심을 모았다.

이배용 총장은 “최근 세계 초일류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두 대학이 손을 맞잡고 국제화 업무를 추진하게 된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라면서 “양교가 국제화와 관련하여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면 한국 대학교육 전체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 과학 · 산업기술 분야 파트너십

또한 본교가 산업기술연구회(이사장 이호일) 및 기초기술연구회(이사장 유희열)와 5월 3일(목 · 오후 3시), 5월 9일(목 · 오후 3시30분) 본관 교무회의실에서 잇따라 학술연구교류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과학 및 산업기술 분야의 파트너 층도 매우 두터워졌다.

산업기술연구회 산하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안정성평가연구소가, 기초기술연구회 산하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핵융합연구센터, 국가수리과학연구소가 소속되어 있다. 본교는 앞으로 이 두 연구회와 ▲기술연구 기획 및 평가 ▲교육훈련 ▲기술정보 및 연구자 교환 ▲공동세미나 개최 ▲공동연구 수행 등 상호 연구발전에 필요한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법무부와는 5월 15일(일 · 오후 3시 · 본관 사회의실) 본교 법학연구소내에 ‘여성 법교육센터’를 개설하여 여성 법교육의 방향성 정립과 활성화를 위해 협력해 나간다는 내용의 ‘여성법교육 사업’ 공동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 서울대 이장무 총장과 이배용 총장이 학술교류 협정 후 악수하고 있다.

◀ 이배용 총장과 중화여자학원 장리지 총장.



### 해외대학 교류 대폭 확대

한편 해외 대학과의 교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배용 총장은 지난 5월 18일 중국 북경 시내에 위치한 중앙민족대학과 중화여자학원을 각각 방문, 교수진 및 재학생 교류, 공동연구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했다.

중앙민족대학은 중국 내 55개 소수민족의 교육을 위해 설립된 대학으로 최근 중국 정부가 집중 지원하는 38개 집중건설대학의 하나로 지정되는 등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주요 대학이다. 중화여자학원은 중국 내 전국 규모의 국립대학으로는 유일한 여자대학으로서 7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본교는 이외에도 최근 중국의 화둥이공대학, 대만의 National Chung Hsing University, 싱가포르의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덴마크의 코펜하겐 대학, 폴란드의 Warsaw School of Economics와도 학술교류협정을 맺었다. 이로써 본교와 교류협정을 체결한 외국 대학은 양자간 협정 35개국 260개교를 포함하여 총 54개국 589개교로 늘어났다. <덕>

이화학술원 · 스크랜튼대학 설립기념식

# 세계 지식의 용광로, 글로벌 인재산실 'OPEN'

‘글로벌 이화 2010 프로젝트’의 중심축인 이화학술원과 스크랜튼대학이 4월과 5월 차례로 설립기념식을 열고 ‘비상(飛上)’의 날개를 활짝 폈다. 이화학술원과 스크랜튼대학은 세계 여성 교육의 허브이자 ‘글로벌 100대 명문대학’으로 도약하겠다는 이화의 지가 집약된 핵심 사업으로 그 행보에 학교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이화학술원 국제 학문 교류 활성화 기대

‘세계 최고 지식의 학술연구기관’을 지향하는 이화학술원이 4월 24일(화·오후 3시) 국제교육관 LG컨벤션홀에서 설립기념식(위 사진)을 가졌다. 국내외 석학이 학문 경계를 뛰어넘어 공동연구와 강연을 진행하게 될 이화학술원은 ▶학문 간 소통과 융합 ▶고등지식인과 연구원간 교류 ▶학계와 연구자간 수준 높은 담론 형성 ▶젊은 연구자들의 지적 기반 형성을 추구하며 국제 학문 교류의 큰 마당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화학술원에 국내외 우수 석학들이 줄줄이 포진하고 있다는 점도 화제다. 학술원 초대 원장으로 선임된 역사정치학자 진덕규 석좌교수를 필두로 초대 인권대사 박경서 교수, 역사사회학자 신용하 교수, 제 1호 ‘국가과학자’인 이서구 교수,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낸 이어령 명예석좌교수, 최고과학기술인상을 수상한 최진호 교수 등 국내 석학들이 강의를 맡았다.

해외 석학의 면면도 쟁쟁하다. 지난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무하마드 유누스 그라민은행 총재, 2005년 노벨 화학상 수상자 로버트 그럽스 교수, 침팬지 연구가인 제인 구달 박사, 중성자별을 최초로 발견한 조슬린 벨 버넬 교수, 프랜시스 후쿠야마 미국 존스홉킨스대 교수 등이 석좌교수로 초빙됐다. 윤후정 이화학당 이사장은 “이화학술원이 우리의 위대한 학문적 계보의 굵은 물줄기로 자리잡아 대학에서 학문한다는 것의 본을 단단히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화학술원은 5월 23일(수·오후 3시) 국제교육관 LG컨벤션홀에서 ‘학문의 향기 과거로 미래로 퍼져나간다’라는 주제로 제 1회 아카데미 렉처를 열었다. 사회역사학 분야의 독보적 석학인 신용하 이화학술원 석좌교수와 올해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을 수상한 임지순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교수가 ‘21세기에서 보는 신간회와 근우회’, ‘과학기술 2020과 수소에너지’라는 주제로 각각 강연했다.

## 스크랜튼대학 글로벌 여성 인재 육성

본교의 글로벌 핵심 역량을 발판삼은 스크랜튼대학(Scranton College) 학장 김혜숙 교수도 5월 11일(금·오후 3시30분) 국제교육관 LG컨벤션홀에서 설립 기념식을 열고 본격 출범했다. 스크랜튼대학은 이화 창립자인 메리 F 스크랜튼 여사의 설립정신을 기념한 스크랜튼학부(Scranton Honors Program)와 기존의 국제학부(International Studies)로 구성되며 ▶최우수 인재 선발 ▶맞춤형 교과과정 제공 ▶저명 교수진 배치 ▶소그룹 집중 관리를 통해 21세기형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크랜튼학부의 가장 큰 특징은 ‘융합형 교육’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공학·인문학·예술을 접목시킨 ‘디지털 인문학’이나 문학·사회학·철학을 포괄하는 ‘문화연구’ 등이 대표적인 예. 학생들은 자신이 속한 대학 전공과 함께



다양한 전공 트랙을 복수 전공으로 이수함으로써 입체적인 전문 지식과 소양을 쌓을 수 있다. 이처럼 국내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독창적인 맞춤형 교육은 글로벌 대학의 전범(典範)이 되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배용 총장은 기념사를 통해 “스크랜튼대학의 설립은 오늘날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최우수 인재 양성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선도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도 참석해 축하했다. <헤>

# “Happy Birthday”

국제대학원, 통역번역대학원 나란히 열돌 맞이  
교육대학원 창립 40주년 · 불문과 창립 50주년



본교가 3주갑을 맞이하는 첫 해인 2007년 국제대학원과 통역번역대학원, 교육대학원, 불어불문학과가 뜻 깊은 생일잔치를 치렀다. 국제대학원과 통역번역대학원은 나란히 열 돌을, 교육대학원과 불문과는 각각 창립 40주년과 50주년을 맞은 것.

● **국제대학원**(원장 최병일 교수)은 5월 21일(월 · 오후2시) 국제교육관 LG 컨벤션 홀에서 1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같은 날 오후 4시에는 외국인 재학생들의 문화 축제인 국제문화 축제(국제교육관 로비), 7시에는 자랑스러운 국제대학원인 시상식을 포함한 동문의 밤(이화 · 삼성교육문화관)등 다양한 기념행사도 개최했다. 국제대학원은 1997년 교육인적자원부 지원 국제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설립, 지난 10년간 졸업생 외국기업 진출 비율 1위, 국제기구 진출 졸업생 수 2위, 국내 유일 세계 국제학협회(SA) 인증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2001년에는 교육인적자원부 국제대학원 종합 평가 1위를 기록하는 등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 국제대학원으로 자리잡고 있다.

● **통역번역대학원**(원장 김용숙 교수) 및 부설 통역번역연구소(소장 이연향 교수)는 6월 14일(목 · 오전10시) 국제교육관 LG컨벤션 홀에서 창립 10주년을 함께 축하했다. 이어 열린 국제학술대회 '통역번역에서 문화요소의 전야: 아시아를 중심으로'에서는 아시아 지역 통 · 번역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통역번역대학원은 1997년에 창립되어 현재 영어 · 일어 · 중국어 · 불어의 4개 언어 통 · 번역 교육기관으로 성장했으며 졸업생들 다수가 외교통상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등 주요 정부부처에서 정상회담 및 주요 부처장의 국제 업무 분야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는 국내 통 · 번역교육의 선두주자이다. 또한 2005년에는 박사학위 과정을 개설하여 이 분야의 학술적 연구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 **교육대학원**(원장 김성원 교수)은 5월 30일(월 · 오후4시) 교육관 B동(153호)에서 창립 40주년 기념식을 갖고 다양한 학술 행사를 마련했다. 4월 27일(금 · 오후 4시) 교육관 B동(153호)에서 '교원의 전문성'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연 것을 시작으로 5월 한 달간 세부 전공별 특별강의 및 세미나를 진행해 지난 40년간의 학문적 성과를 기념하고 미래를 모색하는 기회를 가졌다. 교육대학원은 1967년 사립대학 최초의 교육대학원으로 설립된 이래 현직 교원의 전문성 신장, 교육 관련 제 분야 전문가 양성 및 현장 연계 교육이론 연구 분야를 선도하며 여성교육전문가 양성 및 재교육을 담당해 왔다.

● **불어불문학과**(전공주임 한민주 교수)의 50번째 생일 잔치는 5월 2일(수 · 오전11시) 밀레니엄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불문과 동창회와 공동 주관한 이날 기념식에는 한명숙 전 총리(불문과 67년 졸), 필립 티에보 주한프랑스대사를 비롯해 400여명의 교수, 재학생, 동문, 축하 사절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학술 행사로는 주한캐나다대사관과 주한베트남정부대표부 후원으로 3월 28~29일 인문관 111호에서 '프랑스어권 캐나다 주간(Le Canada en Francophonie)'을 개최했으며 연중 행사로 국내외 불문학계 석학, 전문가를 초청해 특별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불어불문학과는 1957년 유럽관련 여성전문가 육성을 목표로 창설되어 28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학계와 문화계에서 활동하는 교수, 문필가는 물론 현정사상 첫 번째 여성 국무총리였던 한명숙 동문 등 정계, 법조계, 언론계, 국제기구와 경제계에서 활약하는 여성 전문 인력의 산실 역할을 해왔다. <선>

# 자랑스러운 과학이화

## 최진호 석좌교수(나노과학부)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상 수상

나노과학부 최진호 석좌교수가 4월 20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상을 수상했다. 최 교수는 나노 바이오 정보기술을 융합한 '나노DNA 바코드시스템'을 최초로 제안하는 등 융합과학의 터전을 마련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 최 교수가 지금까지 작성한 국제논문은 280편이 넘으며 특허도 50여개나 갖고 있다. 이학박사(독일 뮌헨대)와 공학박사(일본 도쿄대) 등 두개의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그는 "대한민국이 일류국가로 가기위한 성장 동력을 과학기술에서 찾고자 열심히 연구했을 뿐인데 영광스런 상까지 받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은 1968년부터 시행되어 온 '대한민국 과학기술상'을 2003년에 확대, 개편한 시상제도로 국내 과학기술계에서는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 최재천 석좌교수 연구팀(에코과학부) 색다른 '동물 사랑방정식' 연구로 주목



에코과학부 최재천 석좌교수와 김태원 박사 연구팀이 최근 동물의 짝짓기에 관한 색다른 연구결과를 발표해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연구팀이 파나마 스미소니언 열대연구소의 존 크리스티 박사와 함께 갯벌에 사는 농게 행동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암컷들은 '우수한 유전자'가 아닌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해줄 수 있는 수컷들과 짝짓기에 나선다는 것. 이 연구 결과는 온라인 과학저널 'PLoS' 5월호에 게재됐다.

## 김관목 교수(나노과학부) 과기부 '미래를 여는 우수과학자' 선정



과학기술부가 선정하는 2007년도 1분기 '미래를 여는 우수과학자' 11인에 선정됐다. 김 교수는 L-아미노산을 D-아미노산으로 전환하는 합성기술을 개발, 지난 1월 미국화학회지(JACS) 및 세계적인 과학저널 '사이언스(Science)' 지의 화학 분야 하이라이트로 소개된 바 있다. 과기부는 '네이처' '사이언스' '셀' 등 톱저널에 논문을 게재했거나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신기술·신제품 개발자들을 분기별로 격려하고 있다.

### 교수동정



#### 문숙재 교수(소비자학)

5월 26일 개최된 한국가정관리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학문발전에 기여한 업적을 인정받아 공로상을 수상했다.



#### 김말복 교수(무용)

5월 19~20일 한국무용예술학회(회장 김말복) 10주년을 맞아 '출과 비평'을 주제로 학술대회와 무용비평워크숍을 개최했다.



#### 조규화 교수(의류)

4월 28일 창립 10주년을 맞은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로부터 패션산업과 패션학계의 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공로상을 수상했다.



#### 홍양자 교수(체육과학)

21세기 스포츠포럼에서 제정한 '올해의 인물' 상을 수상했다. 지난 1월 2007 토리노 유니버시아드 한국대표선수단장을 맡아 종합우승으로 이끈 지도력을 인정받았다.



#### 오진경 교수(박물관장·미술사학)

6월 1일자로 제 10대 서양미술사학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년이다. 1989년 3월 창립된 서양미술사학회는 국내 대표적인 미술사학회이다.



#### 한인영 교수(사회복지)

4월 21일 개최된 한국사회복지학회 총회에서 차기 학회장으로 선출됐다. 사회복지학회는 20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 정동열 교수 (중앙도서관장·문헌정보학)

2006 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공로를 인정받아 2월 20일 문화포장을 수상했다.

# 음대생 장학금 마련 위한 관현악과 교수음악회 “스승의 사랑은 선율을 타고~”



관현악과 교수 전원이 처음으로 한 무대에 섰다.

관현악과 교수들은 5월 23일(수·오후 7시) '김영의홀'에서 음대학생들의 장학금 모금을 위한 음악회를 열었다. 뛰어난 재능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음악가의 꿈을 접어야 하는 제자들을 돕기 위한 행사여서 더욱 관심을 모았다. 이날 음악회에는 관현악과 김기순 교수(플루트), 이택주 최한원 송재광 교수(바이올린), 배일환 교수(첼로), 성기선 교수(비올라)와 건반악기와 이지민 교수(피아노)가 함께 무대에 올라 모차르트 플루트 4중주 (D Minor K.285), 드보르작 피아노 5중주 (op.81) 등을 연주하며 환상의 하모니를 연출했다. 또 본교 재학생, 졸업생, 강사 및 교수로 구성된 이화플루트앙상블도 참여해 아름다운 화음을 들려줬다.

500여명의 관객이 객석을 가득 메운 이날 음악회에서 모아진 수익금은 약 1200만원. 수익금은 전액 장학금으로 사용되며 매학기 대학원생 2명, 학부생 1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이번 음악회를 제언한 배일환 교수는 “기대 이상으로 호응이 뜨거워 보람이 컸다”며 “음대 다른과 교수들도 동참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온 만큼 음대 교수들이 대거 참여하는 기금 모금 음악회를 매년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왼쪽부터 최한원, 김기순, 배일환, 이지민, 송재광, 성기선, 이택주 교수.

## 간호과학과 2006 대학교육협의회 최우수 평가 ‘세계적인 간호학 명문’ 입증

간호과학과가 ‘2006 대학교육협의회 학문분야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아 국내 최고의 간호과학 교육연구기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위탁 간호교육평가원이 실시하고 전국 33개 간호 관련 대학이 참여한 이번 ‘2006 간호학문분야평가’는 ▶교육목적 및 목표 ▶교육과정 구성 및 이론교육 ▶실습교육 ▶학생 ▶교수확보 ▶교수 업적지원 ▶시설 및 자원 ▶행정 및 재정 ▶교육성과 및 교육과정 개선 활동 등 총 9개 분야를 평가했으며 본교 간호과학과는 전 부문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1903년 우리나라 최초의 간호교육기관으로 출범한 간호과학과는 현재까지 26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며 국내 간호계를 선도하고 있다. 신경림 간호과학대학 학장은 “간호과학과가 현재의 명성에 안주하지 않고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간호 학문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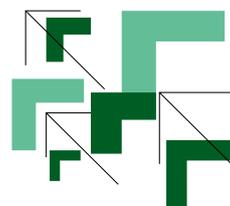
## ‘이니셔티브 이화’ 엠블렘 제작

기획처(처장 강혜련 교수)는 지난 5월 ‘앞서 주도하는 이화’, ‘세게로 뻗어가는 이화’의 역동적 이미지를 형상화한 ‘이니셔티브 이화’ 엠블렘을 제작했다. 디자인대학원장 오병권 교수(시각디자인)팀이 디자인을 맡은 ‘이니셔티브 이화’ 엠블렘은 컬러풀한 색상의 화살표인 ‘상징이미지 A’와 기하학적인 모양의 화살표인 ‘상징이미지 B’ 두 가지 형태로 만들어져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상징이미지 A’ 타입은 주로 색채 표현이 자유로운 매체에 적합하고 ‘상징이미지 B’ 타입은 색채 표현이 제한적이거나 단순한 이미지가 필요한 경우(인쇄 도수가 제한되거나 금색, 은색, 형압 등을 표현할 때)에 사용하면 효과적이다. ‘이니셔티브 이화’ 엠블렘은 현재 대강당 양쪽 벽에 휘장 형태로 걸려 있으며 클리어 파일로도 제작되어 재학생·교직원들에게 배포됐다.

**이니셔티브 이화**  
Global Ewha 2010



**Initiative EWHA**  
Global Ewha 2010



## 영문·중문 미니 홍보 브로슈어 발행

기획처(처장 강혜련 교수) 홍보과는 5월 ‘이니셔티브 이화’가 추진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해외에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영문 및 중국어본 ‘미니 홍보 브로슈어’를 발행했다. 이화의 역사, 글로벌 이화 2010 프로젝트, 선택과 집중의 특성화 전략, 이화학술원, 대학 및 대학원 학제, 유비쿼터스 캠퍼스, 이화의 사람들, 나눔의 국제화, 교환학생 프로그램 등의 내용을 24쪽으로 엮어 글로벌 대학으로 약진하는 이화의 오늘과 내일을 한 눈에 보여준다. 홍보과는 후대가 간편하고 내용 전달이 효과적인 미니 브로슈어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조만간 국문본 및 일본어본도 발행할 예정이다.



## 기관단신

**자연사박물관**(관장 최재천 석좌교수) 5월 29일 신축 개관 10주년을 기념해 ‘자연사박물관의 미래’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남숙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이화여대 자연사박물관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송준임 교수), ‘국내외 자연사박물관의 장기추진계획’(유정철 경희대 교수), ‘국립자연사박물관의 장기추진계획’(이병훈 전 자연사박물관 연구협회장), ‘대학자연사박물관과 국립자연사박물관’(심정자 한남대 교수) 등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식품공학과** 학과 설립 1주년을 기념해 5월 16일 공과대학 강당에서 ‘Trends in Food Science’라는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조은경 다슨(주) 대표이사(여성공학도의 사회진출 및 역할), 서진호 서울대교수(생물소재 생산을 위한 식품생명공학) 등이 특강을 진행했다.

**한국문화연구원**(원장 김영미 교수) 5월 10일 오후 첫 한국학 포럼을 개최했다. 주제는 ‘한국 외교정책 속의 프랑스(1866-1906)’. 이날 포럼에서는 그렛트 바스칼 교수가 새 자료를 근거로 고종의 외교정책과 근대화를 재평가하는 주제발표를 가졌다.

**박물관**(관장 오진경 교수) 7월말까지 ‘전시체험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어린이 대상의 ‘꽃신 만들기’(사진)와 성인 대상의 ‘전통문양과 기법으로 꾸민 도자기’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경력개발센터**(원장 함인희 교수) 이화인의 글로벌 리더십을 키우기 위해 한비아 월드비전 긴급구호팀장의 특강 ‘지도밖으로 행군하라’를 5월 17일(목·오후 3시30분) 학생문화관 소극장에서 진행했다. 5월 22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진대제 스카이에이크 인큐베스트 대표의 ‘열정을 경영하라’는 주제의 특강도 이어졌다.

**공과대학**(학장 김명희 교수) 웰컴 부사장이자 인터넷 서비스 및 모바일 방송 부문 CEO인 페기 존슨 사장을 초청, 5월 30일(수·오후 4시30분) 공과대학 강당에서 “여성공학도에서 탑 매니저먼트까지”라는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

# 2007년 전기 인사발령과 근속 표창 직원

## 2007년 전기 직원 인사발령(4월 1일자)

소속	성명	직위	발령사항
후생복지과	김영희	영양사(주임)	면: 주임(3월 31일자) 보: 과장 명: 생활협동조합 파견
공과대학·공학교육혁신센터	정경희	사무직원(주임)	보: 주임 겸 과장 직무대리
예술대학·조형예술대학	유중실	사무직원(주임)	보: 주임 겸 과장 직무대리
자연사박물관	윤석준	기술원	보: 주임
경력개발센터	홍승렬	사무직원	보: 주임
기숙사	방주영	사감	보: 주임
디자인대학원	이종원	사무직원(주임)	명: 학생복지센터
경영대학·경영대학원	추정아	사무직원(주임)	명: 입학과
교무과	이지영	사무직원(주임)	명: 디자인대학원
학적과	장영숙	사무직원(주임)	명: 교무과
학생복지센터	박지현	사무직원(주임)	명: 학적과
입학과	남경희	사무직원(주임)	명: 경영대학·경영대학원
자연과학대학	이복희	기술원	명: 관재과
예술대학·음악대학 ·실용음악대학원	강학수	사무직원	명: 학적과
학적과	정오훈	사무직원	명: 교무과
기획과	이영희	사무직원	명: 예술대학·음악대학·실용음악대학원
홍보과	김민정	사무직원	명: 자연과학대학
관재과	김윤경	사무직원	명: 교무과
정보시스템관리과	남경호	사무직원	명: 직원노동조합 파견(반전임)
신임	노시태	사무직원	명: 기획과
신임	박성하	사무직원	명: 홍보과
신임	이은정	사무직원	명: 연구과·산학협력과
신임	김혜수	사무직원	명: 홍보과(6월 1일자)



노시태



박성하



이은정



김혜수

## 창립 121주년 장기근속 표창 교직원 명단

근속 연수	직위	교직원 명
30년 근속	교수	이 근(의학) 김종일(의학) 송유재(언론홍보영상학) 송준민(특수교육) 홍양자(체육과학) 김숙자(체육과학)
	직원	함윤애(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김봉련(학생복지센터) 김영희(후생복지과/생활협동조합 파견) 조금희(회계과) 현영애(중앙도서관) 송미란(기숙사) 송명동(부속 이화·금관고등학교) 정숙현(부속 이화·금관고등학교) 조완영(부속 이화·금관고등학교)
	연구원	김정예(중앙도서관) 박진숙(한국여성연구원)
20년 근속	교수	정영순(사회복지학) 연구월(의학) 홍기숙(의학) 홍영미(의학) 최경규(의학) 강진욱(국어국문학) 최민숙(독어독문학) 윤정열(경제학) 이외숙(통계학) 김명희(컴퓨터정보통신공학) 김옥조(도자예술) 박종윤(과학교육) 이강만(약학)
	직원	장병천(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박한숙(총무과) 김창연(총무과) 홍순영(총무과) 이철기(총무과) 박한식(후생복지과) 김행관(시설과) 박종호(시설과) 연두석(부속 이화·금관고등학교)
	연구원	김애련(평생교육원)
10년 근속	교수	김동근(교목실) 최병일(국제학) 이인표(국제학) 이창희(번역학) 안재호(의학) 성주영(의학) 박성훈(의학) 이선희(의학) 한재진(의학) 고영도(의학) 정익모(의학) 강병철(의학) 임원정(의학) 문병인(의학) 장한업(불어불문학) 이준연(수학) 김낙명(전자정보통신공학) 윤재신(건축학) 김상곤(성악) 신지화(성악) 김희진(유아교육) 장영민(법학) 최승원(법학) 황혜진(국제사무학) 김옥수(간호과학)
	직원	최연숙(대학원교학부·이화학술원) 남재연(중앙도서관) 나지균(부속 이화·금관고등학교) 노정원(부속 이화·금관고등학교) 이남숙(부속 이화·금관고등학교) 김세향(부속 초등학교)
	연구원	김희림(정보시스템관리과) 조윤희(정보시스템개발과)

# 상..상..상.. 이화인들 수상행진

## 다양한 부문에서 빛나는 승전보

2007년 상반기에도 이화인들의 빛나는 수상소식이 이어졌다. 교육·국제·예술·체육·광고 등 다양한 부문에서 승전보가 전해졌다.

● 교육공학과 3학년 학생들로 구성된 5개팀은 5월 19일 한국교육정보미디어 학회(KAEM)가 주관한 '교육정보미디어전'에서 금상, 은상, 장려상을 독식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들은 교육공학과 학회인 교재개발부에서 활동하며 만든 작품을 출품해 금상(김지윤 외 3인-HACE원장상, 김은희 외 3인-KERIS원장상), 은상(이예지 외 3인), 장려상(장현숙 외 5인, 이예지 외 1인) 등 5개 상을 수상했다. "겨울방학 동안에도 학교에 나와 땀흘린 노력이 결실을 맺게 돼 기뻐다"는 게 이들의 소감.



indivISUAL 팀

● 국제대학원 권정윤씨(국제학과·석사 1학기)와 국제학부 3학년 박설리씨는 태평양협력위원회(PECC)의 한국위원회(KOPECC)가 주관한 에세이 콘테스트에서 각각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받았다. 두 사람은 지난 4월 KOPECC가 주관한 에세이 콘테스트에서 우수상에 입상, 그 특전으로 5월 1~2일 시드니 호주에서 열린 '제 17차 PECC 총회'에 한국 대표단으로 참석했다. 이후 총회 참관기와 기존 에세이 컨테스트 점수를 종합한 결과 최종적으로 최우수상, 우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의류직물학과 이승희, 이인성 교수



중문학과 3학년 팀

● 예술·체육부문 수상소식도 잇따랐다. 무용과 장혜주(석사 1학기), 박다정(4년)씨는 5월 3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제 37회 동아무용콩쿠르'에서 각각 현대무용 여자부 금상과 발레 여자부 동상을 거머쥐었다. 의류직물학과 패션디자인연구실 소속 이승희(박사수료)씨와 이인성 교수는 논문 '중국 인터넷 쇼핑몰에 나타난 한국 스타일에 관한 연구'로 5월 12일 한국복식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앞서 4월 25일에는 본교 작곡과 김지현(4학년)씨가 서울대학교 예술관 콘서트 홀에서 열린 제 30회 창악회 콩쿠르에서 우수상을 차지했다. 사회체육학과 4학년 최민경씨는 4월 대한민국 훈장 체육부문 청룡장(대통령 수여)을 받았다.

● 기업 주최 대학생 공모행사에서도 이화인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박지원(시각정보디자인·4년), 김혜정(경영·3년), 김미주(광고홍보·4년), 양선영(경영·3년)씨는 indivISUAL이라는 이름으로 팀을 꾸려 4월 20일 제 28회 제일기획 광고대상에서 국문기획서 부문 은상을 차지했다. '제일기획 광고대상'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표적인 광고 공모전.

이에 앞서 중문학과 3학년 박경아씨 등 6명은 지난 2월 10일 KTF가 주최한 대학생 기업참여 프로그램 MF(Mobile Futurist)에서 총 50개 참가팀 가운데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 “토익 만점 비결 함께 나눠요”



국제학부 1학년에 재학중인 신상지씨가 최근 토익(TOEIC) 만점 비결을 담은 책 '헬로 토익 만점전략 비밀일기' (아이디얼북스)를 펴내 화제다. 토익 990점 만점을 자랑하는 신씨는 어린 시절(2~5세) 미국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지만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국내에서 다닌 '준(準) 토종파. 고2 여름방학에 처음으로 토익에 응시해 600점을 맞은 그는 2006년 2월 네 번째로 시험에 도전해 만점을 받아냈다.

그런 신씨에게 출판사측에서 출판에 제의 했다고 2007학년도 국제학부 수시전형으로 합격한 후 한달동안 밤을 새가며 원고를 쓰게 됐다고, 신씨는 "만점 비결은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라며 "토익은 시간을 투자한만큼 점수가 올라간다"고 귀띔했다.

## ‘이화의 仁術을 세계로...’ 하계 이화해외의료봉사단 활동



2007학년도 하계 이화해외의료봉사단이 6월 22~30일까지 해외에서 사랑의 인술을 펼친다.

정구영, 문영철 교수를 필두로 학생 10명(의대 4명, 본교 6명), 병원직원 5명(의사 3명, 간호사 1명, 치위생사 1명)으로 꾸려진 봉사단은 21일 발대식을 갖고 22일 출국해 우르겐치에서 일반진료, 특수진료, 지역조사 활동을 수행한다.

앞서 21일 의학관에서 문영철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발대식은 치과 전문식 교수의 지도로 시작돼 응급의학과 정구영 교수의 경과 보고, 이순남 의학전문대학원장 축사, 이화총동창회선교부 격려사, 이강진 원목 말씀, 약품 및 의료용품 전달식으로 마무리됐다.

## 의과대학 졸업 50주년 및 30주년 ‘모교 방문의 날’



의과대학 졸업 50주년 및 30주년을 맞는 동창 15명이 5월 30일 김옥길홀에서 열린 모교 방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교수 20여명, 재학생 30여명이 참석해 동창들을 반겼다. 재학생들이 대

선배들을 열렬히 환영해 감동을 자아낸 이날 행사는 의학과 2학년 최효선 학생의 바이올린 축주와 교가 제창으로 마무리됐다. 의대 동창들의 장학금 기탁도 줄을 이었다. 5월 22일 열린 이화의대동창회 제 41차 정기총회에서 김화숙 동창회장이 1000만원을 기탁한 것을 비롯, 양경희 동창(37회·1988년 졸업·양경희산부인과 원장) 1억원, 이혜성 동창(26회·1977년 졸업) 2000만원, 26회(1977년 졸업)동기회 3000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우경숙 동창(21회·1972년 졸업·부천미즈앤미여성의원 원장)이 신임 동창회장으로 선임됐다.

의과대학 졸업 50주년 및 30주년을 맞는 동창 15명이 5월 30일 김옥길홀에서 열린 모교 방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교수 20여명, 재학생 30여명이 참석해 동창들을 반겼다. 재학생들이 대

### 의학전문대학원

● 6월 18~22일까지 진행한 2008학년도 수시모집 인터넷 접수 결과, 총 30명 모집(일반 26명, 특별 4명)에 총 154명(일반 151명, 특별 2명)이 지원해 5.1 대 1(일반 5.8 대 1, 특별 0.5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차 합격자는 오는 7월 26일 이화의전원 홈페이지(www.ewhamed.ac.kr)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며 9월 8일 심층구술면접고사를 거쳐 10월 5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 5월 15일 목동 의학관B동 814호에서 이화의학시뮬레이션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이 센터는 학생의 임상 실기 교육은 물론 의료원 전공의, 간호사 및 지역 의료인과 관련 중사자 대상의 임상 실기 교육에도 활용된다.



### 동정



#### 윤견일 원장 (이화의료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5월 18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세계인의 날’ 지정기념 행사에서 법무부 장관 감사장을 받았다. 이 상은 국민과 외국인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공헌한 사람에게 수여된다.

#### 이순남 교수(의학전문대학원장)

6월 14~1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 33차 대한 암학회 학술대회에서 ‘사노파-아벤티스 학술상’을 수상했다. 우리나라 종양학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사노파-아벤티스 학술상’은 임상연구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업적을 쌓은 연구자에게 수여된다.



#### 김혜순 교수(소아과)

당뇨병 연구 논문이 소아과 대표 학술지인 ‘Pediatric Research Vol 60 No 2 2007’ 최근호 표지 논문으로 채택됐다. 김 교수는 ‘Insulin-like growth factor binding protein-3 induces insulin resistance in adipocytes in vitro and in rats in vivo.’ 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인슐린양 성장인자 결합단백-3 이 지방세포와 쥐 실험에서 인슐린 저항성을 나타낸 것을 실험으로 증명해 냈다.

#### 유경하 교수(소아과)

4월 21일 한국여자의사회가 수여하는 제 11회 중외제약연구비를 수상했다. 수상 연구 주제는 ‘저산소 처리가 성체줄기세포 가동화 및 손상된 간으로의 귀환에 미치는 영향’. 중외제약연구비는 여의사 회원 중 우수한 연구를 발표하거나 특별한 연구업적을 세운 회원을 매년 선정, 연구비를 보조하는 상이다.



### 과학의 지형도 | 고인석 지음

주제통합형 교양과목 교재로 개발된 책. 과학이라는 거대한 분야의 형성과정과 과학을 구성하는 부분간의 상호관계를 세밀하게 살피고 있다. 과학을 들여다보고 과학에 대해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고 훈련하는 데 중점을 둔 이 책은 한 영역과 다른 영역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묻고 따져보며 그 과정을 통해 독자 스스로 과학의 지형도를 머릿속에 그려나가도록 유도한다. <1만2000원>



### 기독교 도상학의 이해 | 앙드레 그라바 지음/박성은 옮김

고대와 중세의 기독교 도상의 창조과정과 그 의미를 다룬 책. 미술사 방법론에서 도상학적 접근이란 작품을 시각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그 구조와 맥락을 살피는 작업이다. 이 책은 기독교 미술의 형식적인 관점뿐 아니라 기독교의 교리와 역사를 폭넓게 담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 <2만원>



### 한국의 온천 | 김규한 지음

한반도에 분포하고 있는 온천 발견의 역사에서부터 온천수의 기원, 연구 방법, 온천의 관리, 온천 문화에 이르기까지의 온천의 성인(成因)과 역사를 과학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특히 온천의 최근 연구 방법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안정동위원소, 방사성동위원소, 영족기체 동위원소를 이용한 온천연구법을 다루고 있으며, 58곳의 탄산약수의 성인 모델과 북한의 온천 자료도 요약 소개하고 있다. <1만2000원>

### 애니메이션 | 베르나르 제빙 지음/윤화로 옮김

<카이에 뒤 시네마 영화이론> 시리즈의 세 번째 책. 한 장 한 장의 이미지로 만들어지는 영상 예술인 애니메이션의 역사와 제작기법, 세계 각국의 유명 애니메이터들과 작품들을 쉽고 일목요연하게 소개하고 있다. 애니메이션에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이해하려는 초보 독자에게 특히 유용하다. <8000원>



### 조선 후기 지식인의 일상과 문화 | 성기옥 외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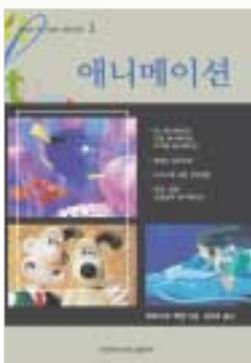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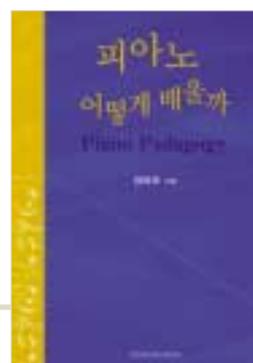
조선 후기는 사회 경제적 변동으로 인해 전통적인 삶의 양식이 크게 변화한 시기이다. 이 책은 조선 후기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사회 변동에 어떻게 대응하며 생활했고, 어떻게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갔는지 고찰하고 있다. <이화 한국학 총서>의 제 1권. <1만3000원>

### 여성주의 리더십: 새로운 길 찾기 | 윤혜린 외 지음

여성주의 리더십은 변화를 통한 목표 달성을 추구하는 변혁적 리더십이되, 보다 평등하고 평화적이며 상호 보살핌 사회를 지향한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여성주의 리더십'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취약한 상황에서 저자들은 이론적, 방법론적 틀에 구애받지 않고 각자 자율적으로 주제를 선택하여 여성주의 리더십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있다. <1만원>

### 피아노: 어떻게 배울까 | 안미자 지음

피아노를 가르치고 연주하는 데 기초가 되는 철학과 원리를 소개하고 연주 테크닉과 관련된 음악적 요소들을 다양한 음악 예시와 함께 설명한 책. 학부와 대학원의 피아노 교수법 과목의 교재로 고안된 이 책은 기교 위주의 피아노 학습에서 탈피하고 맹목적으로 교사의 지도를 따르는 대신 음악을 이해하고 연주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1만1000원>



## 출판부 소식

<우리 문화의 뿌리를 찾아서 The Spirit of Korean Cultural Roots> 시리즈 20권 출간을 기념해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 20%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우리 문화의 뿌리를 찾아서>(영문)를 비롯해 <말이 트이는 한국어>, <Mother's Cooking Note> 등 본교 출판부의 대표적인 영문도서를 할인 판매한다. 기간은 6월 1일부터 30일까지.

## 2007 동창의 날

# 이니셔티브 이화 발전기금 50억원 약정

### 김순영 총동창회장 개인 후원금 2억원 약정



15대 총동창회 김순영 회장(왼쪽 사진)은 5월 31일 (목·오후 2시) 대강당에서 열린 동창의 날 기념식에서 동창들의 뜻을 모아 50억원의 이니셔티브 이화 발전기금 약정서를 이배용 총장에게 전달했다. 이와는 별도로 김 회장은 개인 후원금으로 이니셔티브 이화 발전기금 2억원을 약정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총동창회는 학교 발전을 위해 이니셔티브 이화 발전기금 50억원을 약정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솔선수범하는 마음으로 먼저 2억원을 약정했으며 모든 동창들이 동참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회장은 1999~2001년 약대 동창회장을 지냈으며 지난 3월 10일 열린 총동창회 정기총회에서 본교 제 15대 동창회장으로 선출됐다.

한편 이배용 총장이 마련한 오찬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는 '올해의 이화인' 37명을 비롯해 1957년과 1977년 졸업해 각각 50년, 30년 만에 다시 만난 동창들과 EAA(Ewha Alumnae Academy)프로그램에 참가한 해외동창 등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기념식 후엔 올해의 이화인 추대식과 5개 팀이 참가한 합창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뒤를 이었다. 특히 올해 처음 선보인 '다함께 몸풀기'는 동창들의 열띤 호응을 얻었다. 체육학과 김숙자 교수의 지도아래 객석의 동창들은 물론 분홍색 한복으로 단장하고 무대에 다소곳이 앉아 있던 올해의 이화인 모두가 일어나 동참하며 흥을 더했다.

## 김순덕 · 김수정 · 신동인 동문 이화언론인상 수상



김순덕



김수정



신동인

동아일보 김순덕 논설위원(영문·84년 졸), MBC 김수정 아나운서(신방·02년 졸), KBS 신동인 프로듀서(신방·85년 졸)가 제 7회 '올해의 이화언론인상'을 수상했다. 이화언론인클럽(회장 김혜경)은 4월 25일 이화·삼성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이들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김순덕 동문은 여성 특유의 섬세하고 예리한 필치의 칼럼으로 필명을 날리고 있으며 2002년 7월부터 현재까지 동아일보 최초의 여성 논설위원으로 활약중이다. 김수정 동문은 지난 2000년 여자 아나운서로는 처음으로 골프중계 캐스터로 발탁되며 '금녀(禁女)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스포츠 캐스터 분야의 '성벽(性壁)'을 허물었다. 신동인 동문은 국내 최장수 유아프로그램인 KBS 'TV유치원 하나둘셋'을 14년째 기획·연출·제작하며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제작에 앞장서고 있다.

## 박민정 동문(경제학과) 美 미네소타대 조교수로 임용



경제학과 박민정 (2002년 졸) 동문이 최근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조교수로 임용됐다.

박 동문은 1998년 21세기 장학생으로 본교 경제학과에 입학한 후, 2002년 최우등으로 졸업했다. 같은 해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경제학 석박사 과정에 입학한 그는 5년만인 6월 산업조직론을 전공으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또 졸업과 동시에 미네소타대 경제학과 조교수로 채용돼 이번 가을학기부터 학부 및 대학원에서 산업조직론을 강의할 예정이다.

박 동문은 "너무 기쁘다.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외국인으로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다"고 말했다. 언어 장벽도 있었고 토론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 자신감을 잃은 적도 있었지만 특유의 끈기와 의지로 이겨냈다는 설명이다. 본교에 재학하면서 전주성 교수 등 경제학과 스승들로부터 학문 접근 방식과 연구 방법, 세상을 보는 시각을 배웠다는 박 동문은 "이화에서의 경험이 큰 자양분이 되었다"고 말했다. <성>

## 이니셔티브 이화 발전기금 소식

### 이배용 총장 LA 방문, 약 40만 달러 기금 모금



이배용 총장이 4월 26 일(목) ~ 5월 2일(수) LA 를 방문, 본교를 후원하는 이화국제재단(회장 샤론 레이더)의 연례 기금모금 행사 및 동문 간담회에 참석, 큰 성과를 거두고 돌아왔다. 이번 행사를 통해 이 총장은

미주지역의 동문들에게 이니셔티브 이화의 비전을 설명했고 이화국제재단과 미주지역 동문들로부터 약 40만 달러의 기금을 모금했다. 또한 미국의 서부 명문대인 UCLA와 USC를 방문, 본교와의 학술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총장은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 이화의 발전을 염원하는 미주 동문들의 뜨거운 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화의 새 비전에 공감한 미주 동문들은 다음과 같이 기금을 모금하여 이 총장에게 전달했다.

북미주동창회 \$3000, 장혜원(약학 50년 졸) \$1000, 박옥희(약학 51년 졸) \$1000, 유인희(체육 56년 졸) \$1000, 신장현(교육 57년 졸) \$1000, 김영재(약학 57년 졸) \$1000, 정태숙(교육 61년 졸) 1000만원, 하명숙(체육 66년 졸) \$1000, 홍미화(영문 66년 졸) \$2000, 정문자(의학 66년 졸) \$1000, 안미생(약학 66년 졸) \$1000, 이숙현(가정 67년 졸) \$1000, 장화인(교육심리 69년 졸) \$1000, 임선재(사회 72년 졸) \$1000, 차순순(기약 70년 졸) \$1000, 이주영(관련 81년 졸) \$3000, 이명미(약학 81년 졸) \$200, 문애리 \$1000

### 미국 볼티모어지회 홍경주 동문 10만달러 약정



본교 이배용 총장의 LA 방문 소식을 접하고 5월 8일 볼티모어지회 홍경주 동문(약학 62년 졸)이 이니셔티브 이화 발전기금 10만달러를 약정했다. 홍 동문은 약대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결혼후 미국 Baltimore City 병원 임상화학실험실에서 Senior Technician으로 근무했다. 그리고 이화 사랑이 각별한 홍 동문을 위해 부군 윤인배 박사는 5월 21일 이화국제재단에 10만달러의 홍경주장학금을 설립했다. 이화국제재단에서 운영하는 홍경주장학금은 2008년 겨울부터 약학대학 학생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 귀뚜라미복지재단 이사장 김미혜 동문 4억원 약정

4월 11일 귀뚜라미복지재단 이사장 김미혜 동문(이영희 65기, ALPS 67기)이 교육·연구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이니셔티브 이화 발전기금 4억원을 약정했다. 김 동문은 "큰 일 한 것처럼 알려지는 것이 부끄럽다"며 학교 발전을 바란다는 겸손한 소감을 전했다. 김 동문은 이사장 취임 이전부터 꾸준히 사회봉사활동을 해 왔고 현재 저소득가정과 노인,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창립 121주년 기념



### '이화 가족의 밤' 10억여원 약정

5월 29일(화) 총장 공관에서 창립 121주년을 기념하는 '이화 가족의 밤' 만찬 행사가 있었다. 이 자리에는 윤후정 이사장, 이배용 총장, 이어령 명예석좌교수, 진덕규 이화기술원장, 각 대학장 및 대학원장, 각 처장 등 교내 귀빈 35명과 이현재 호암재단 이사장, 장하진 여성가족부장관, 김순영 총동창회장, 학부모와 동창, 평생교육원 발전후원회, 이영희연합회, 이화ALPS동창회 등 단기과정 동문과 외부 귀빈 240여명이 참석하여 창립 121주년을 축하했다. 또 참석자들은 '이니셔티브 이화' 정신에 크게 공감하여 미래 이화 발전에 성원과 격려를 보내며 김을주 동문(약학 56년 졸, 이영희 27기, ALPS 9기), 이영숙 동문(약학 57년 졸, ALPS 17기), 유순이 동문(이영희 2기)이 각각 1억원을 약정하는 등 총 10억1600만원의 기금을 약정했다.

### (주)호텔 코모도 회장 이영숙 동문 1억원 약정



(주)호텔 코모도 회장 이영숙 동문(약학 57년 졸, ALPS 17기)은 "학교 발전을 위해 항상 동참하고 싶다"며 이니셔티브 이화 발전기금 1억원을 약정했다. 이 동문 역시 그동안 21세기 발전기금 1억원, 북한여성교육기금 3000만원, 이화어린이집 기금 1100만원 등 모교 발전을 위해 많은 기금을 기부해왔다. 작년에는 이화 창립 120주년을 맞아 1년간 교직원과 동문들에게 코모도 호텔 이용시 할인혜택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번 만찬에 함께 참석한 이 동문의 사위인 에스병원 이승철 원장도 1000만원의 이니셔티브 이화 발전기금을 약정했다.

### 김을주 동문 발전기금 1억원, 장학금 5000만원 약정

김을주 동문(약학 56년 졸, 이영희 27기, ALPS 9기)이 이니셔티브 이화 발전기금 1억원을 약정했다. 김 동문은 그동안 김활란 박사추모사업기금 1억원, 기숙사사업 기금 3000만원, 이화·포스코관 기금 1억원 등 모교 발전을 위한 많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고, 지난 4월 5일 김을주장학금 5000만원을 약정하여 총 1억원의 장학기금을 설립하게 된다. 김 동문을 본받아 딸인 김기령 동문(영문 81년 졸)도 이니셔티브 이화 발전기금 1000만원을 약정하여 대를 이은 모교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제 4회 Ewha Alumnae Academy

총동창회(회장 김순영)와 대외협력처(처장 이명선 교수)가 공동 주최하는 해외 거주 동문 교육프로그램 Ewha Alumnae Academy(이하 EAA)가 2007년 5월 29일(화)~6월 1일(금)까지 4일간 진행됐다. 올해 제 4회째인 EAA는 '21세기 패러다임의 변화와 여성의 역할'을 주제로 이어령 명예석좌교수, 진덕규 이화학술원장, 함인희 경력개발센터 원장의 특강과 캠퍼스 투어, 창덕궁 견학, 이사장 초청 오찬, 총장 초



청 오찬, 총동창회장 초청 만찬, 대외협력처장 초청 만찬, 그리고 창립 121주년 동창행사 참석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EAA는 미주지회 동문 뿐 아니라 독일지회, 싱가포르지회 및 국내 지회 동문들도 참여했다. 총 22명의 동문들은 알차고 뜻깊은 프로그램이었다고 평가하며 더 많은 동문들이 참여하면 좋겠다는 소감을 피력했다. 그리고 수료식에서 학교발전에 써달라며 이니셔티브 이화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이니셔티브 이화 발전기금 약정자 명단 (약정기간: 2007.1.11~5.31)

**동창** 이희호(문과 44년 졸) 121만원, 박미혜(국어국문 64년 졸) 100만원, 정혜련(기독교 62년 졸) 100만원, 안혜초(영문 65년 졸) 100만원, 노경선(불문 82년 졸) 1000만원, 정기은(독문 87년 졸) 1000만원, 최명숙(정치외교 57년 졸) 1000만원, 김혜경(화학 88년 졸) 5만원, 양수화(기약 71년 졸) 1000만원, 김강희(피아노 81년 졸) 500만원, 황윤정(오르간 95년 졸) 1000만원, 양영희(조소 93년 졸) 500만원, 윤민정(실내환경디자인 01년 졸) 300만원, 김하예린(무용 4년 재학) 500만원, 이나새(무용 4년 재학) 500만원, 이순일(유아교육 35년 졸) 1000만원, 김수정(유아교육 99년 졸) 1000만원, 최은경(영어교육 94년 졸) 10만원, 김신(사회생활 76년 졸) 1000만원, 윤혜령(사회생활 77년 졸) 1000만원, 이지현(비서 86년 졸) 300만원, 원종숙(의학 63년 졸) 100만원, 현대내과 김윤재(의학 80년 졸) 1000만원, 김선연(의학 81년 졸) 1000만원, 김금미(의학 89년 졸) 1000만원, 강정복(간호 74년 졸) 1000만원, 고영덕(약학 65년 졸) 250만원, 이정현(약학 65년 졸) 250만원, 이혜원(의류직물 68년 졸) 1000만원, 김유경(의류직물 70년 졸) 1000만원, 이순실(대학원 약학과 05년 졸) 10만원, 김선옥(대학원 한국음악과 박사과정 수료) 1000만원, 정숙영(디자인대학원 석사과정) 1000만원 **평생교육원발전후원회** 강옥채 1000만원, 구본원 1000만원, 김순애 1000만원, 김영선 1000만원, 김영희 500만원, 노학자 500만원, 문금순 1000만원, 박숙희 500만원, 백현미 300만원, 송문자 500만원, 신옥경 200만원, 원윤자 500만원, 윤영애 1000만원, 이영숙 1000만원, 장선애 500만원, 홍복례 1000만원 **이영희연합회** 김영희(60기) 3000만원, 임희숙(74기) 1000만원 **이화ALPS총동창회** 이강희(5기, 약학 66년 졸) 500만원, 박정옥(13기, 생물 62년 졸) 3000만원 **교직원** 이어령(이화학술원) 200만원, 진덕규(이화학술원) 1000만원, 성정순(명예교수) 1000만원, 정세화(명예교수) 1000만원, 황경재(명예교수) 1000만원, 김용숙(불문) 1000만원, 이경숙(기독교학) 1000만원, 방희정(심리학) 1000만원, 김광옥(식품공학) 1000만원, 윤금희(건반악기) 1000만원, 김기순(관현악) 1000만원, 박신화(성악) 1000만원, 오용길(한국화) 1000만원, 강애란(서양화) 1000만원, 김수정(시각디자인) 500만원, 김민성(시각디자인) 500만원, 김연정(공간디자인) 500만원, 최유미(영상디자인) 500만원, 김영수(교육공학) 500만원, 김은주(영어교육) 500만원, 김해련(경영) 500만원, 백지연(국제사무) 300만원, 조계숙(국제사무) 1000만원, 최애경(국제사무) 300만원, 이경혜(간호과학) 1000만원, 박혜영(약학) 1000만원, 이난희(대외협력) 500만원, 왕혜정(대외협력) 300만원, 김용일(정보통신) 4000원, 유경희(중앙도서관) 1000만원 **이화가족** 강병은 1000만원, 고지현 500만원, 김경환 100만원, 김계숙 1000만원, 김명희 500만원, 김상동 1000만원, 박용진 500만원, 박윤옥 1800만원, 박종성 500만원, 배성만 300만원, 백경흠 1000만원, 백민정 300만원, 손희걸 300만원, 송광덕 100만원, 유경하 30만원, 유광선 1000만원, 이규현 1000만원, 이명권 1000만원, 이승우 200만원, 이영숙 300만원, 장길성 1000만원, 전년연 1000만원, 정정순 1000만원, 조규정 500만원, 조봉규 1000만원, 추명희 100만원, 황희철 1200만원, (주)대진코스탈 1000만원, (주)물수나무목 1000만원, (주)아라메 100만원, 이화사랑(포스코관) 2000만원, 주식회사 영원무역 1000만원

황진선 동문 저서 “나는 프로페셔널이다” 저자 수익금 전액 기부 약정



5월 31일 한국패션지 영입 이사 황진선 동문(경영 90년 졸)이 최근 펴낸 '나는 프로페셔널이다' (랜덤하우스 출판)의 저자 수익금 전액을 이니

셔티브 이화 발전기금으로 기부하겠다고 전해왔다. 황 동문은 영입이 남자들만의 영역이라는 편견을 깨고 그 역량을 인정받아 현재 동양 최초로 아시아를 무대로 뛰는 글로벌 매니저로 활약하고 있다.

황 동문은 사회생활을 하는 후배들의 경력 개발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책을 준비한 만큼 그 수익금을 후배들과 학교의 발전을 위해 쓰고 싶다고 전했다.

교내 발전기금

현대건설 공학관 B동 건축기금 10억원 약정

현대건설이 3월 9일 공학관 B동 건축기금 10억원의 약정서를 대외협력처에 전달했다. 본교 공과대학의 아산 공학관도 현대그룹에서 후원하고 현대건설이 건축한 바 있다.

21세기발전기금 삼성증권 1500만원 **이화캠퍼스센터(ECC)건축기금** 이화국제재단 외 1억7427만21원 **사회과학대학기금** 이영희연합회 1000만원 **법과대학발전기금** 이영희연합회 1000만원 **경영대학발전기금** 이영희연합회 1000만원 **조형예술대학프로젝트기금** 광원기 1000만원, 김대식 1000만원, 김선희 1000만원, 윤여림 2000만원 **유아교육과발전기금** 문미옥(87년 졸) 500만원 **국제사무학전공실습실기금** (사)한국비서협회 200만원 **의과대학 BK21사업단발전기금** 강덕희 286만8000원, 권복규 300만원, 김영주 286만8000원, 김희선 286만8000원, 박은미 286만8000원, 박혜숙 300만원, 박혜영 286만원, 서석호 286만8000원, 서주영 191만2000원, 양현중 191만2000원, 오세관 280만원, 우소연 286만8000원, 유경하 286만8000원, 유권 191만2000원, 이경은 239만원, 이지희 286만8000원, 이진화 143만4000원, 이화영 190만원, 정성철 286만8000원, 최경규 286만8000원, 최병옥 286만8000원, 최정윤 286만8000원, 하은희 286만8000원, 한기환 286만8000원, 한운섭 143만4000원, 한재진 280만원 **의과대학사랑실천기금** 김한수 200만원 **이화간호실버프로젝트기금** 김지연(96년 졸) 100만원, 성지아(06년 졸) 100만원, 양정은(06년 졸) 60만원, 이경미(06년 졸) 60만원, 김순옥(박사과정) 50만원, 김옥(박사과정) 200만원 **국제교육원기금** 이화국제재단 \$2,500 **패션디자인연구소기금** 패션디자인연구소 1000만원 **연구진흥기금** 신한카드(주) 1955만3577원 **이화행정인기금** 이화행정인클럽 250만원 **임상치의학대학원발전기금** 김유경 400만원, 김혜원 400만원, 상재우 2000만원, 서혜연 400만원, 양은선 400만원, 이형란 200만원, 이화연 400만원, 임계수 400만원 **통역번역대학원발전기금** 장애리(02년 졸) 10만원, 조은미(02년 졸) 10만원, 이은용(03년 졸) 10만원, 손정임(04년 졸) 50만원, 스키야마나오미(04년 졸) 10만원, 유지애(05년 졸) 10만원, 이승신(05년 졸) 10만원, 장현정(05년 졸) 10만원 **유아교육발전기금** 박우진 200만원, 오후석 10만원, 이상구 200만원, 조성범 3000만원 **초등교육발전기금** 김춘희 200만원, 김태홍 200만원, 박마리 500만원, 박원숙 500만원, 송태인 1000만원, 이광준 1000만원, 이호상 3000만원, 정세열 500만원, 정재은 1000만원, 황순엽 300만원, 사운드파이프코리아(주) 3000만원

## 장학금 소식

### (주)SK '이화여대 국제 인력교류 사업기금' 1억원 약정

2월 27일 (화 · 오전 10시) 본관 소회의실에서 (주)SK의 국제 인력교류 사업기금 전달식이 있었다. 이 기금은 저개발국가(특히 방글라데시)의 빈곤여성 및 그 가족의 자립을 돕기 위해 우수한 국내 · 외 사회복지 및 미래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한 기금으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에 걸쳐 총 1억원을 사회복지 전문대학원에 장학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 섬유예술전공 김혜경장학금 3000만원

5월 29일 고 김혜경 퇴직교수의 자제분들이 본교를 방문하여 고인의 빈소를 지켜준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30여년간 봉직해오신 섬유예술전공에 30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지난 5월 5일 작고하신 김 교수는 1949년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1960년 4월부터 본교에서 교수로 재직, 1991년 2월 퇴직했다. 유족들은 "생전에 김 교수가 보인 제자 사랑의 뜻을 받들어 후학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고인을 추모하는 장학금을 기부했다.

### 황창규 삼성전자 반도체 총괄 사장 장학금 3000만원 전달 언론홍보동창회 장학금 1500만원 모금



황재원 동문(언론홍보영상학부 07년 졸)의 학부형인 황창규 삼성 전자 반도체총괄 사장이 2월 21일 총장실을 방문하여 언론홍보영상학부 동창회장장학금 3000만원과 670만원 상당의 PDP TV를 기증

했다. 그리고 언론홍보영상학부 동창회(당시 회장 성인숙, 70년 졸)는 5월 23일 동창회 행사에서 대외협력처에 1500만원의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언론홍보영상학부 동창회는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 모금에 나서 2001년까지 1억여 원의 장학기금을 모아 동창회중 첫 장학후원회사가 되었으며 저금리로 인한 원금 손실을 우려하여 계속하여 장학금 모금에 힘쓰고 있다. 이로써 언론홍보영상학부 동창회장장학금은 총 2억여 원의 기금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 정의과 동창회 조정자장학금

돌아가신 스승을 추모하는 정치외교학과의 조정자장학금 모금에도 제자들의 참여가 계속되고 있다. 김경희(정치외교 57년 졸) 30만원, 안윤정(독어독문 69년 졸) 37만3000원, 이양준(정치외교 70년 졸) 32만7000원, 문남희(정치외교 73년 졸) 100만원, 송외숙(정치외교 74년 졸) 10만원, 한인숙(명예교수) 160만원, 모미물산 30만원

### 의과대학 스승, 선배들의 사랑이 담긴 장학금

의과대학 동문교수 모임인 행림회의 장학금 약정에 이어 의과대학 재직 남자교수 친목 모임인 주목회(회장 김종오)도 2007년 1월 17일 의학전문대학원생들을 위한 장학금 3000만원을 약정했다. 그리고 이경은 교수(의학과)가 518만원,

이해순 교수(의학과)가 138만9354원의 장학금을 보내왔다. 의과대학동창회에서 보낸 선배들의 장학금은 다음과 같다. 김석희(67년 졸) 200만원, 최보원(69년 졸) 2200만원, 김태임(74년 졸) 1200만원, 조종남(75년 졸) 650만원, 최혜영(78년 졸) 150만원, 의대동창회인양지회 150만원

### 학교 앞 델리아띠 장학금 약정

본교 앞에서 델리아띠 매장을 운영하는 (주)제너시스가 3월 27일 매달 매출액의 일부(약 100만원)를 본교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보내겠다고 약정했다.

### 경영대학 CEO 장학금

전광우(딜로이트코리아 회장) 30만원, 하영구(한국씨티은행 은행장) 30만원, 구학서(신세계 부회장) 30만원, 최영성(AT커니코리아 회장) 30만원, 변대규(휴맥스 대표이사) 30만원

### 이화인닷넷 아름다운 기부, E-pro(2%)장학금

김혜경(화학 88년 졸) 5만원, 오현주(생물과학 85년 졸) 10만원, 신화형(섬유예술 88년 졸) 1만원, 최연숙(대학원교학부) 5만원, 박지영(대외협력) 5만5000원, 김용일(정보통신) 1만원, 채희선 2만7000원

### 이화국제재단에서 보내온 장학금

Chun Hi & Joseph Crivello Scholarship \$2500, Steve Seihun Kang Memorial Scholarship \$7000, Chang Hyun Shin Geer Scholarship \$5500, Florence M. Trull Memorial Scholarship \$3500, Hak He Rhee & Chong Soo Pyun Scholarship \$3000, Harriet P. Morris Memorial Scholarship \$9000, Helen Kim Memorial Scholarship \$10000, Henrietta Gibson Ledden Memorial Scholarship \$6000, Jong H. Lee CPA Scholarship \$3500, Kathleen Crane Memorial Scholarship \$2500, Kathryn B. Sears Memorial Scholarship \$7500, Marian Sharrocks Intemann Memorial Scholarship \$4000, Marion Conrow Memorial Scholarship \$3500, Mark Gaston Scholarship \$3500, New York Alumnae Scholarship \$10000, Okgill Kim Memorial Scholarship \$5000, P. William Lee Scholarship \$6000, San Francisco Alumnae Scholarship \$7000, Shin Hyung Kim Memorial Scholarship \$2000, Sook Hyun Lee Scholarship \$5000, Southern California Alumnae Scholarship \$5000, The Whilsmith Memorial Scholarship \$2500, Washington D.C. Alumnae Scholarship \$19000, Young Za Kim Scholarship \$13000

### 그 밖의 장학금

총동창회 2500만원, 미주올랜도지회동창회 \$2000, 이우회 200만원, 이화민주동우회 200만원, 유종근(경원문화재단 이사장, 영어영문 67년 졸) 900만원, 양에스더(기독교학 65년 졸) 1000만원, 이금진(기독교학 76년 졸) 200만원, 이명경(무용과 77년 졸, 신학대학원 01년 졸) 200만원, 송미은(비서 78년 졸) 300만원, 백남진(정치외교 81년 졸) 50만원, 최은침(신문방송 02년 졸) 200만원, 고신애(임상치의학대학원 05년 졸) 100만원, 김소양(임상치의학대학원 06년 졸) 100만원, 조계숙(임상치의학대학원 06년 졸) 100만원, 추선희(이영희 7기) 345만3000원, 방치웅(방치과의원 원장) 150만원, 신완(법양금속주식회사 대표이사) 523만7000원, 윤미숙 50만원, 최용철(최치과 원장) 150만원, 한영자(삼양화학공업 대표) 1200만원, 대학교회 200만원, 아현감리교회 100만원, 캐나다연합교회(The United Church of Canada) 57만463원, 불빛여성재단 1162만3000원, 일곡문화재단 300만원, 조산장학재단 200만원, (주)FTU 352만1000원, (주)미래세움 400만원, (주)리더십 프런티어 300만원, (주)신흥 1200만원, (주)티피치과기금 소 200만원, 우림건설(주) 453만3000원, 음악대학 200만원, 자영메디칼 100만원



## ‘여성들을 위한, 여성들에 의한’ 최초의 의료 기관

# 보구여관(保救女館)

김수자(이화역사관 연구원)

조선에서 ‘여성들을 위한, 여성들에 의한’ 의료 사업의 단초가 보이기 시작한 것은 1887년으로, 이화학당이 건립된 지 1년 후의 일이었다. 이화학당 설립자인 스크랜튼 선생님과 아들 스크랜튼 의사는 조선 여성과 아이들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해외여성선교회에 여자와 아이들만을 따로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들어달라고 청원하였다.

1887년 해외여성선교회에서는 스크랜튼 선생님의 요청을 받아들여 메타 하워드 의사를 조선에 파견하였다. 이로써 조선 최초로 여성을 위한 전용병원이 세워졌다. 이 병원은 이화학당 구내에 세워졌으며, 후에 고종은 여성을 보호하고 구하라는 의미의 보구여관(保救女館)이라는 이름을 하사했다.

의료사업은 초기 복음전도에 있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것은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의 육체적인 상처 뿐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도 보듬어 치료해 주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마음이 조선인에게도 전달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초기 보구여관은 조선의 한옥을 개조한 것이었다. 보구여관에는 약국과 저장소용 방, 그리고 지저분한 것들을 씻을 수 있는 세탁장과 환자대기실도 있었다. 물론 진찰실과 수술실도 갖춰져 있었다. 그리고 병동이라고 부르기에는 작지만 입원 환자들을 위한 6개의 방도 있었다. 방은 온돌이었으며 담요를 제공해 주어 딱딱한 바닥을 보완해 주고자 했다. 초기

에 서양 선교사 의사들의 고충 중의 하나는 환자들을 진찰할 때 바닥에 앉아서 진찰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다고 한다.

초기에 보구여관에서 의료활동을 전개하신 대표적인 분으로는 메타 하워드 의사와 이후 부임하신 로제타 셔우드, 메리 커틀러, 릴리안 해리스 선생님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박에스터 같은 몇몇 한국 여의사들도 보구여관을 중심으로 의료 활동을 헌신적으로 수행했다.

특히 로제타 셔우드 선생님은 1890년 보구여관에 네명의 한국 소녀와 한명의 일본 소녀를 중심으로 의사훈련과정(Medical Training Class)을 만들었다. 이것은 한국 여성의 의료는 한국여성의 손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소신에 의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들 중 한명이 후에 우리나라 최초의 여의사가 된 박에스터였다.

보구여관에서 이루어진 의료활동 중 조선인들에게 경이의 대상이 되었던 대표적인 것으로는 백내장 수술(앞 못보는 사람 눈 뜨게 해준 수술), 언청이 수술과 화상으로 손가락과 손바닥이 붙어 있었던 소녀의 수술 등이 있다. 점차 의료활동은 첫해에 비해 환자의 수가 3배 이상으로 증가하는 등 성공을 거뒀다. 보구여관에서는 진료 뿐 아니라 환자들에게 성경을 읽어주며 기도를 하는 등 기독교 전도 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

보구여관은 1912년에 확장돼 동대문으로 옮겼으며 릴리안 해리스 기념병원으로 개칭된 후 이후 동대문 부인병원이 됐으며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의 토대가 되었다. 1887년 설립된 보구여관은 의료혜택에서 소외됐던 여성들에게 복음과 같은 존재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의과대학과 간호대학 설립의 기틀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후 이들 기관에서 수많은 전문직 여성들이 배출되었다는 점에서도 한국 근대 여성사의 한 획을 긋는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